

2023. 7. 8.(토)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3년 7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미래한강본부 총무부 문화홍보과

운영부 운영총괄과

운영부 공원시설과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6쪽

총무부장	임재근	02-3780-0706
문화홍보과장	차정윤	02-3780-0765
담당자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넙콘)	강우원	02-3780-0760
담당자 (광진교8번가 공연)	이서경	02-3780-0776
담당자 (한강역사탐방)	오은선	02-3780-0763
운영부장 직무대리	김세정	02-3780-0801
운영총괄과장	양윤희	02-3780-0804
담당자 (조각작품 순환전시)	박용운	02-3780-0809
담당자 (철인3종)	전승곤	02-3780-0813
공원시설과장	양돈욱	02-3780-0840
담당자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신승민	02-3780-0844

공연 전시, 물놀이 즐길거리 풍성... 서울시, "이번 주말 한강으로 놀러오세요"

-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이번 주 일요일 마지막...재즈·마술쇼, 안락한 빈백 휴식
- 잠실·잠원한강공원 40점 '조각작품' 전시
- 성인·청소년·유아풀, 놀이기구 등 취향 따라 고르는 한강 야외수영장·물놀이장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과 어우러지는 재즈 선율부터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유명 마술사의 흥미진진한 마술쇼,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조각작품 관람까지.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 곳곳에 있는 한강공원이다.

- 서울시가 이번 주말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풍성한 한강으로 시민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 공연, 플리마켓, 식도락 체험, 독서, 산책, 휴식 등 축제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다면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추천한다. 이번 주 일요일(7.9) 올여름 마지막 한 회만을 남겨두고 있다.(‘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하반기 운영기간 : 9.3~11.12 매주 일요일, 추석연휴 제외)
-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 오면, 안락한 빈백과 만화책 등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무더운 요즘 시원한 다리 그늘 아래에서 강바람 맞으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보면 어떨까. 잠수교 곳곳에는 재즈밴드 ‘코즈’, 마술사 ‘문준호’, 퓨전국악팀 ‘시아’ 등이 라이브 공연을 선사해 주중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다. 재활용·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맛있는 거리음식도 즐길 수 있다.
- 특히 상반기 마지막 회차를 맞아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잠수교 ‘보물 찾기’ 프로그램이 열린다. 잠수교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미션을 수행한 시민에게는 튜브스터 이용권, 푸드트럭 이용권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 국내 유일 교각 하부에 위치한 전망대 ‘광진교 8번가’에서는 금요일(7.7), 토요일(7.8) 연이어 시민 참여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금요일 저녁 18~19시에는 초등학생들의 피아노·핸드벨 공연이, 토요일 14시~16

시20분에는 경로당, 요양원 등에 위문 공연을 다니는 ‘골든색소폰 봉사단’의 색소폰 앙상블이 펼쳐진다. 탁 트인 한강 풍광과 함께 감성을 채우길 바란다.

- 미술작품을 관람하고 싶은 시민에게는 서울시 잠실·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조각작품 순환전시’를 소개한다. 버려진 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리사이클링 작품 ‘새(bird)’〈성낙중 作〉, 종이학과 텐트를 결합한 형태를 띄어 유년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종이학 텐트’〈백종인 作〉 등 총 40점의 작품(공원별 20개)을 8월 20일(일)까지 만날 수 있다.

- 푹푹 찌는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고 싶다면, 한강 야외수영장·물놀이장이 안성맞춤이다. ▲슬라이드 등 놀이기구가 다양한 여의도 수영장 ▲일광욕과 수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뚝섬 수영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형 조합놀이대가 설치된 광나루 수영장 ▲성인, 청소년, 유아풀을 갖추고 있는 잠원수영장 ▲한강을 조망하는 인피니티풀이 조성된 난지 물놀이장 ▲자연친화적인 양화물놀이장까지 취향껏 골라서 즐길 수 있다. 오전 9시~18시 운영된다.

- 철인3종 경기의 주요 무대인 ‘한강’에서 이번주 일요일(7.9)에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철인3종 경기 ‘아이언키즈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열린다. 총 150여명의 어린이(만 2~6세)들이 뚝섬유원지 내에서 수영, 자전거, 달리기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 이밖에도 한강해설사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한강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듣는 도보탐방 프로그램 ‘한강역사탐방’, 여의도에서 서강대교 등 한강을 투어하는 ‘유람선’, 요트·패들보드·카약 등 수상스포츠 체험프로그램도 지속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 ‘한강역사탐방’은 한강이야기여행 누리집 (<http://visit-hangang.seoul.kr>)에서, ‘유람선’은 이랜드 크루즈 누리집 (<http://www.elandcruise.com/>)에서, ‘한강수상스포츠 체험’은 서울시체육회 누리집 (www.seoulsports.or.kr)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에 오면 축제부터 공연, 전시, 스포츠, 물놀이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다. 이번 주말 도심 속 피서지 ‘한강’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한강에서 다채로운 축제·행사를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참고사진

[붙임] 참고사진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눅콘'



조각작품 순환전시(좌-'새', 우-'종이학 텐트')



독섬수영장 전경